

주택 매입자를 위한 재산세 안내



재산세의 정의

재산세는 지방 행정구역에 의해 관할되는 세금입니다. 서울은 카운티에 따라 다르며 개별 자산의 연간 평가 금액에 사전 설정한 퍼센트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재산세는 1년에 2회 분할 납부합니다.

신규 매입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

첫 해의 재산세 납부는 신규 주택의 에스크로를 언제 종료하는가에 따라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자산이 에스크로에 있고 매도자가 최근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귀하의 대리인은 납부 증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납부한 재산세가 게재되는 데에는 6주까지 걸릴 수 있으므로 소유권 예비 보고서에는 아직 재산세가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매도자의 재산세 납부 증명이 있으면 세금을 묶어두지 않고 에스크로를 성공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1월에서 10월 사이에 매입한 경우, 재산세 청구서가 매도자의 새 주소로 보내질 수도 있습니다. 10월 중순까지 재산세 청구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카운티 세금 징수관에 연락하여 세금 청구서 사본 발송을 요청해야 합니다. 카운티로부터 세금 청구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11월 1일 마감일까지 첫 번째 재산세 분할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재산세 납부일과 연체 납부에 대한 벌금 정보를 알아보시려면 23페이지의 세금 납부 일정표를 참조하십시오.**

에스크로를 12월 10일경에 종료하고 매도자가 아직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도자는 세금 징수관에게 수표를 발행하여 에스크로 책임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에스크로 책임자는 소유권 업무 처리 회사가 이를 카운티로 보내도록 처리할 것입니다. 수표가 에스크로 종료일까지 결제되지 않는 경우, 이 액수는 유보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파운드 계정이란 무엇입니까?

임파운드 계정이란 대출자가 자신의 재산세와 보험료가 적시에 지급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매달 재산세와 위험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대출기관이 임파운드 계정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임파운드 납입금은 매월 모기지 원금 및 이자와 함께 징수되며, 이는 연간 세금 및 보험료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후 의무적인 최소 두 달치의 세금 및 보험료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대출기관은 재산세 분할 납부 마감일(11월과 2월)과 보험료 지불 마감일에 맞추어 재산세와 보험료를 계정에서 인출하여 카운티 세금 징수관과 보험회사에 직접 지불합니다.



Lawyers Title

주택 소유자 재산세 납부 일정표

1월	2월	3월
<p>1월 1일 과세액 사정일</p>	<p>2월 1일 2차 세금 분할 납부 마감일 2월 10일 주택 소유자, 재향군인, 노인의 100% 면제 신청 최종일</p>	<p>3월 1일 무담보 자금에 대한 세금</p>
4월	5월	6월
<p>4월 10일 2차 세금 분할 납부 연체 10%의 벌금 및 \$10.00의 가산료 추가.</p> <p>벌금 및 가산료는 4월 10일에서 6월 30일까지 유효</p>		<p>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p>
7월	8월	
<p>7월 1일 - 1회 또는 2회 세금 분할 납부 계속 연체 10%의 벌금, \$15.00의 가산료, 매월 1.5% 추가</p> <p>7월 1일 - 주택 소유자에게 신규 자산 가치 통보</p>		
10월	11월	12월
	<p>1차 세금 분할 납부 마감일</p>	<p>12월 10일 - 1차 세금 분할 납부 연체 10%의 벌금 및 \$10.00의 가산료 추가</p> <p>12월 1일 - 주택 소유자, 재향군인, 노인의 80% 면제 신청 최종일</p>



Lawyers Title